

[ TV ]

TV 9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Each column lists program names, times, and channel numbers.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생방송 세상의 아침', 'MBC 뉴스투데이', etc.

양희은 “‘아침이슬’은 시위 위한 곡 아니었다”

데뷔 35주년 공연기념 기자회견...“노래의 사회성 뼈저리게 체험”



“아침 이슬”이 시위 현장에서 불릴 줄은 몰랐습니다. 데뷔 35주년을 맞아 내달 14,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콘서트를 펼치는 가수 양희은이 8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가수로 만든 데뷔곡 ‘아침 이슬’에 대한 사연을 털어냈다. “당신의 노래는 참여와 독려의 집인데 이것이 당신의 뜻이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작곡가(김민기)도 나도 ‘아침 이슬’로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 않았다”면서 “김민기 씨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듯이 나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침 이슬’을 부른 건 곡조와 노랫말이 가슴에서 울려펠 때”라며 “결국 노래는 불러주는 이의 것이고 ‘아침 이슬’이 시위 현장에서 불린 건 그 노래가 선택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내 노래를 듣고는 다른 노래 같이 머리까지 쭈뼛 서는 무서운 진율을 느꼈다”며 “노래의 사회성을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회고했다. 양희은은 또 “누구보다 먼저 이 노래를 들

어 내 노래로 삼은 게 내 인생을 바꿨다”고 털어놓은 뒤 “(노래 끝 부분인)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를 부르기 위해 이 노래를 처음부터 부르는 것”이라고 자신의 노래를 평가하기도 했다. 35주년 공연을 앞둔 소감에 대해서는 “지난 세월을 자랑하기보다는 더 잘 늙어가고 더 아름답게 노래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희은은 “노래는 제자 전가지만 내 것이 지 시중에 나온 뒤에는 ‘품 안의 자식’이 아니다. 대중이 내 노래를 품어서 키워 되돌려줄 때 내가 노래부를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대표적 포크 가수로 35년을 지낼 수 있었던 공로를 대중에게 돌렸다. 8번째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진행 중인 그는 처음 5년 간 DJ로서 희의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프로그램을 처음 맡았을 때 경건기여 우물쭈물이었다. 그러나 청취자들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눔의 거대한 어깨동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Living TV advertisement for 'Sariji is our thing - Sambe' (오전 11시 20분). Includes a photo of a woman and text describing the show's focus on social issues and community.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woman and a horse. Promotes a 25th anniversary sale with 30% discount on repairs and replacement of parts.

케이블·위성TV 9월

Large table listing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Columns include YTN, MBN, MBC MOVIES, OCN, SBS, EBS1, EBS2, KBS KOREA, and KBS KCTV.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